

세계 문화 전문가 200여명 光州에 온다

'아시아 문화전당 진로' 토론

31일 '2008 아시아 문화포럼' 개최

세계 각국의 문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 문화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진로에 대해 토론하는 행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2008 아시아 문화포럼'(이하 문화포럼)을 개최한다.

'유럽 문화 도시와 아시아 문화 콘텐츠를 통해 본 아시아 문화 전당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화포럼에는 일본 문화청 장관을 역임한 하야시다 히데키 일본 국립신미술관장, 루이스 빅스 리버풀 비엔날레 총감독, 2000년 유럽문화수도였던 이탈리아 볼로냐 안젤로 콜리엘미 부시장 등 국내외 문화예술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문화포럼은 국내외 문화계 인사들이 해외 문화도시 조성 성공 사례와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례를 공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화교류 강화를 위해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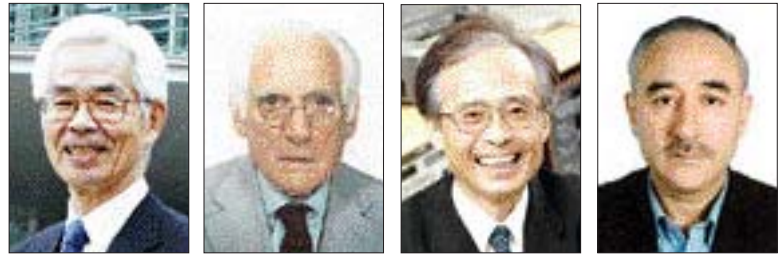
련한 행사로 지금까지 오카자마 사다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 특사, 라울 페르티에라(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교수), 차오 낸시 하오밍(국립대만 대학 교수), 소설가 황석영 등이 연사로 참여한 바 있다.

2008년 행사는 하야시다 히데키 관장의 기조 연설 '아시아 문화전당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기대'와 아미

하야시다 日 국립신미술관장 등 패널 콘텐츠 활성화·문화 교류 강화 논의

르 자마니 니아 아시아의회 총회 사무총장의 '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 활성화'를 주제로 열리는 제 2회 '아시아 문화 콘텐츠의 활성화 및 미래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 2

회 '아시아 문화 콘텐츠의 활성화 및 미래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 2회 '아시아 문화 콘텐츠의 활성화 및 미래 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 2



하야시다 히데키 안젤로 콜리엘미 하야시 가즈히코 자마니 니아

구축방안과 전략-비엔날레와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조인호(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 루이스 빅스, 안젤로

영상학회 부회장)와 린다 리(아세안 문화정부위원회 사무국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상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 혁(한-아세안센터 설립준비기획단장)씨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어 열리는 종합토론에서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아시아 문화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하야시다 히데키 등 발표자들이 토론에 나선다.

이번 문화 포럼에는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추진단 홈페이지(www.cc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150명을 선발한다. 마감은 오는 22일까지다. 문의 02-564-2380.

하야시 가즈히코 (일본 사이언스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갤러리 안, 그림 보고 음악도 듣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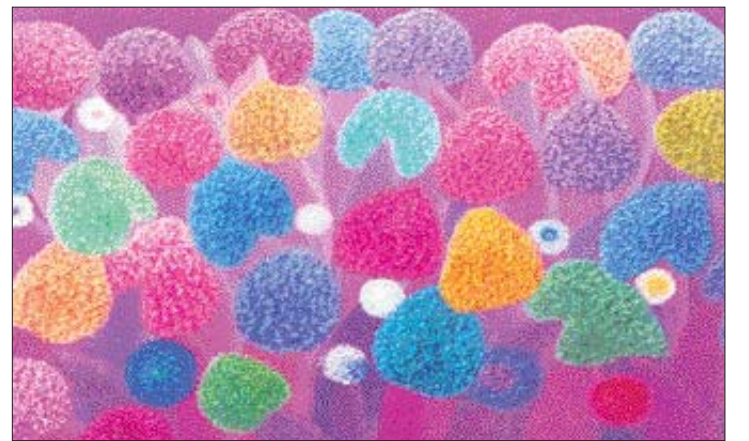
15일 하우스 콘서트

전시회는 15~21일

지난 봄 첫번째 하우스 콘서트를 열었던 생활 속 문화공간 '갤러리 안'이 두번째 행사 '가다림의 행복'을 준비했다.

주부 박원영씨가 자신의 아파트(운암동 아이파크 110동 301호)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 '갤러리 안'은 '편안하다'는 의미와 함께 음악회나 전시회를 보러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집'안'으로 들어온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시양화가 한희원씨를 초청해 첫 전시회를 꾸렸던 박씨는 이번엔 '파꽃'으로 유명한 최향씨를 초청했다. 무안·해남 등지에서 봄이던 파는 양파꽃 군락을 연두, 노랑, 보라, 분홍, 파랑 등의 감각적인 빛깔로 표현한 파꽃 연작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만들고 있는 최씨는 이번 전시에서 '파꽃은~비람에 흩날리고' 시리즈를 선보인다.



최향 작 '파꽃은~비람에 흩날리고'

최씨는 홍익대 미술대학 출신으로 브라질 상파울로 예술원, 뉴욕 한국 현대미술 초대전을 가졌고 형가리 기오르 비엔날레 한국전, 한·일국제현대미술제 등에 출품했다.

전시회 오픈일인 15일 오후 6시 30분에는 소박한 하우스 콘서트도 함께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고장옥(피리), 이창훈(바이올린), 김미옥(소프라노), 김제선(바리톤)씨가 출연

해 채동선 곡 '그리워', 최용식 곡 '사랑이여' 피리 민요, 로시니의 '고양이 이중창', 존 데버의 'Perhaps Love'를 들려준다. 주인장 박원영씨가 피아노 반주를 맡을 예정이다.

전시는 오는 21일(관람시간 오전 11시~오후 5시)까지 계속되며 편안한 마음으로 아파트를 방문하면 차 한잔 마시며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62-514-030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여성작가회 정기전

15일까지 대동갤러리

광주·전남여성작가회(회장 이해경)가 오는 15일까지 대동갤러리에서 24번째 정기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강숙자, 고은숙, 고정희, 김혜숙, 임경옥, 전현숙, 정순이, 조정아, 최강희, 한경희씨 등 회원 46명이 참여해 '감성과 열정'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권하주씨는 꽃잎이 피어나는 순간을 포착한 '찰라'를 전시하고, 신수정씨는 흰색과 붉은 색을 과감하게 풀어 집감을 살린 추상작품 '인스피레이션'을 출품한다.

지난 1982년 창립된 광주·전남 여성작가회는 지역의



이해경 작 '앙귀비'

대표적인 여성 작가 모임으로, 해마다 1~2차례 정기전을 열고 있다. 문의 062-222-007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화가 장용림씨 개인전

서울 인사동 광주시립미술관

한국화가 장용림씨가 오는 14일까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광주시립미술관 리프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장씨는 이번 전시에서 개망초, 배꽃, 매화, 들꽃, 사과꽃 등 화사한 꽃의 세계를 선보인다.

아슬아슬하게 꽃봉오리를 터뜨린 꽃잎의 섬세함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화면을 꽃으로 가득 채운 작품들이다.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장씨는 지난 2004년 첫 번째 전시를 열었고, 광주청년작가회, 여림회, 전통과 회상



'인동초 II - 비람을 기다리며'

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2-725-0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파파 남성합창단' 연주회

12일 5·18 기념문화관



평범한 직장인들로 구성된 '파파 남성합창단'의 제5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5·18 기념문화관 민주홀에서 열린다.

'행복한 아빠들과 아주 특별한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오 신실하신 주' '아지랑이' '신유화' '라구오' '아빠의 청춘' 등 크리스천에게 익숙한 찬송가부터 가요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또 순수아마추어 합창단인 '순천여성합창단'이 우정 출연해 '춤추는 춘향'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등을 들려준다.

문의 016-655-41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수경 피아노 독주회

14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신수경(전남대 예술대 음악학과 교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는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신씨는 이번 공연에서 부조니의 '샤콘느'와 베토벤의 '소나타 A장조 작품 101', 쇼팽의 '소나타 B단조 작품 58'을 들려준다.

서울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신씨는 일리노이대 유학시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실기와 화과 모두 우등 졸업하며 연주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만하임 프레스러 문하에서 피아노와 실내악을 사사했다.

신씨는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 서울 금호아트홀에서도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062-376-519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정희·최규하 가옥 문화재로 등록

문화재로 등록

박정희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이 살았던 집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역대 정부 수반 유적 중 '신당동 박정희 가옥'을 등록문화재 412호로, '서교동 최규하 가옥'을 413호로 등록했다고 9일 밝혔다.

'신당동 박정희 가옥'은 박 전 대통령이 1958년 5월부터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관사로 이주하기 전까지 살던 곳으로, 1979년 서거 후 유족들이 한 때 살았고, 현재는 옥영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이 가옥은 박 전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을 진두지휘한 곳이기도 하다.

또 서교동 가옥은 최규하 전 대통령이 1972년부터 1976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이전하기 직전까지, 또 대통령 퇴임 후 1980년부터 2006년 서거 전까지 살았던 곳이다.

/연합뉴스

Movie advertisement section with '영화안내' and 'movies' logos, listing various theaters and their current film screenings.